

오늘 아침, 당신의 집 앞에 봄을 보았나요?

도심 속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물하는 조경업체 '에코밸리'

글. 방지수 (jisoo_a@naver.com)

사진. 함금실 (hgslove87@naver.com)

최근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속 얘기를 털어놓는 토크쇼의 제목부터, '나를 힐링 시켜주는 음식, 사람, 장소'라며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까지. 많은 사람이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힐링 아이템들을 찾고 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경'을 통해 '힐링'을 선물하고 싶다는 분들을 만나 보았다. 주민들의 발걸음, 생활습관까지 꼼꼼히 조사하여 도심 속 현대인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경회사 '에코밸리'. 김희진(38)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에코밸리에서 16년째 일하고 있는 경영기획실 김희진 실장 (38세)

Q.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 김희진실장입니다. 조경학과를 졸업 후 첫 직장에서도 선임으로 만난 현재의 대표와 함께 에코밸리를 창업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계약, 입찰, 공사관리의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에코밸리에서 재무,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 하고 있습니다.

Q. 회사를 소개해주세요.

건설업 중에서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조경계획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 A/S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매출 400억, 약45여명의 정직원, 자체사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조경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경은 건축 등 외부디자인을 생활에 맞게 편리하고 자연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건물을 제외한 모든 외부환경이 조경의 분야이죠. 그래서 아파트 건물을 제외한 길부터 담벼락, 놀이터, 벤치까지 모두 조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놀이기구, 운동기구, 야외의자 등 다양한 옥외 시설물들을 설계에서부터 제작을 하고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 공원, 수목원, 휴양소, 골프장, 정원 등의 자연환경 공간을 만들기도 해요.

Q. 시설물들이 '자연'을 모티브로 만든 제품들이 많은 거 같아요.

현재 트렌드는 '힐링'이잖아요. 그래서 힐링을 주제로 조경과 접목하자면 '친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친환경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거든요. 외부공간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한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도시 안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힐링을 줄 수 있다면 조경의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조경이라 하면 놀이터를 만들고 안에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길을 하나 내더라도 주민들의 동선과 취향을 비롯해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서 만들고 있어요.



▲ (왼쪽) 자연석 옹벽을 쌓는 첨단공법 'eco-belt' (오른쪽) 명산을 도입한 산수정원 '산수원' (사진출처: 에코밸리)

Q.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주력사업은 환경친화용벽구조물인 "에코벨트", 최첨단 디자인제품인 놀이및휴게시설물 "AIR", 명산올도입한 축경식산수정원 "산수원", 친환경목재 "ARTWOOD", 친환경벽면녹화 "가든월" 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제품, 디자인을 주력으로한 특허품과 디자인상품개발에 집중하여 10년여전부터 준비한 결과가 근래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Q. 건설회사들을 평가하는 순위에서 에코벨리가 3,000개의 조경회사 중에 3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순위권에 선정된 에코벨리만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국내에 약 3천 여개의 조경전문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시공, 설계 등 한쪽에 치우친 영업을 해요. 에코벨리는 자체적으로 보유중인 "정디자인환경연구소"로 인하여 조경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디자인 애프터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타 회사와 차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사무실 모습

Q. 초기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나요?

처음에 창업할 땐 10명 내외였어요. 10명 내외였다가 5년 안에 16 -17명 운영해왔고, 지금은 정규직만 45명의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Q. 다른 인터뷰 기사에서 '같은 스펙이라도 인성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성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미래를 꿈꾼다" 가 에코밸리의 사훈입니다. 사훈이라는 것이 여러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동료와 함께 작업하고, 회사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꿈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애정과 성의를 보여주고, 기본 예의와 동료간 선후배간의 예절을 갖춘 것을 말하고 싶어요.

Q. 직원들 근무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강제 퇴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정하신 가족의 날 수요일에는 전 사원이 모두 6시 30분이면 퇴근을 해요.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 근무는 당직개념으로 팀 안에서 돌아가면서 1명씩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시공이 위주인 회사라 현장에선 일용직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사무실에 연락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Q. 그러면 야근도 많은 편인가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야근은 필수예요. 하지만 야근을 위한 야근은 회사도 직원도 비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가족의날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효과적인 업무운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여직원보다 남자직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최근부터 여직원들이 늘기 시작했고, 지금 있는 여직원들은 모두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 사무실 곳곳에 조경으로 꾸며진 모습을 볼 수 있다.

Q. 에코밸리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다면?

네. 회사 3층에 휴게실 겸 회의실이 있어요. 직원들이 점심 먹고 오면 낮잠도 자고, 손님 오면 차도 한잔 하는 곳 이죠. 사무실 전체 바닥이 온돌로 되어있어 겨울철은 정말 좋아요. 별도로 온풍기가 필요없으니 사무실 내부 공기도 좋고, 먼지도 없고요.

Q. 1층에 있는 건 구내식당인가요?

네. 사장님이 밥 한 끼는 꼭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세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 제2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직원들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사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저희 인원을 다 수용할 만한 식당도 없고, 식사만 하고 들어와도 점심시간이 다 허비되고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다른 팀이면, 서로 얼굴보기도 어렵거든요. 점심시간 때라도 회사 식구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

Q. 에코밸리 배지가 있더라고요. 배지를 주는 회사는 처음 봐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만들게 된 건가요?

우리 회사는 매년 슬로건을 정해요. 올해는 'happy 2014' 작년에는 'special start'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매년 슬로건에 따른 디자인을 해서 해마다 배지를 만들고 있어요. 연말 연초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무엇을 하자'등 목표를 정해서, 일년 동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직원 모두 하나의 뜻으로 가는 거죠.

Q. 에코밸리의 기업문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에코밸리는 다른 회사에 비해 직원들의 단합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워크숍부터 김장, 월례회의등 많은 행사를 합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통 이야깃거리가 생겨서 좋다는 의견도 많아요. 아무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생기니까 사적인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사내분위기도 돈독해지거든요.

Q. 에코밸리의 기업문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에코밸리는 다른 회사에 비해 직원들의 단합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워크숍부터 김장, 월례회의등 많은 행사를 합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통 이야깃거리가 생겨서 좋다는 의견도 많아요. 아무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생기니까 사적인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사내분위기도 돈독해지거든요.



▲ (왼쪽)직원들이 함께 모여 김장 하는 모습 (오른쪽) 보라카이 해외연수 모습. (사진출처: 에코밸리)

Q. 현재 구인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는 "정디자인환경연구소"내 디자인 파트 인원을 충원 중에 있는데 디자인 전공자 졸업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조경쪽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지원자라면 좋겠어요.

Q. 그럼 디자인 전공자들에게 팁을 준다면?

기존의 건축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라이노(Rhino)라든지 3d맥스(3D MAX)라든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더해해서 캐드(Auto CAD)라든지 설계에서 다루는 툴도 다룰 수 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Q.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있나요?

에코밸리는 매년 12월 초 회사 홈페이지와 취업포털, 조경관련전문지(라펜트)등을 통해 채용공고를 올려서 구인합니다. 1차 서류전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디자인관련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는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그룹면접이고, 인사담당자, 임원진이 함께 4-5명의 지원자를 두고 그룹면접을 진행해요. 실무능력도 체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건 인성이예요. 옷차림, 답변태도와 질문이해력, 다른 지원자 답변시 경청태도, 기본예의나 동료애, 선후배간 예절 등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면접장에서 나갈 때 찻잔을 정리하는지 등 사소한 것까지 면밀하게 관찰해 점수화하죠. 면접을 보러오라는 전화에서 부터 어떻게 응대하는지부터 평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Q. 채용하시고 수습기간도 있으신가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70%를 받아요. 3개월 이후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채용할지를 결정합니다.

Q.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나요?

내가 '이 회사에 왔을 때 잘 맞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조경회사가 맞는지 판단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직에 쉽게 적응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구성원으로 준비되어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직원 인터뷰>



▲ 입사한 지 8개월 된 이기연 사원 (24세)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에코밸리 경영기획팀에 입사한 지 8개월 차 된 신입사원 이기연입니다.

Q. 어떤 업무 하고 계시나요?

저는 회계업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작성 및 현장 경비 집행 등 회계 · 행정 업무를 해요.

Q.지금까지 일하면서 에코밸리 회사의 분위기가 어때요? 일하시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여기가 제 첫 직장이에요. 주위에서 듣거나 보았던 '직장'이란 개념은 딱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휴식시간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간식도 같이 나눠 먹어서 가정적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사적으로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아서 답변해줬을 때 '고맙다' '감사하다'는 칭찬의 표현을 자주 해줘서 좋았어요.

Q.지금까지 일하시면서 느낀 근무 강도?

우리 회사가 건설업체 다 보니깐 많은 조경공사현장, 특화 건물시공 현장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근무 강도가 세다고 느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부가세 신고, 근로소득신고 등 제한된 시간 내에 일 처리를 끝내야 하는 업무라 야근이 종종 있거든요.

Q. 자신은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 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정보가 매우 많아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를 어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Q. 어떤 동료가 들어왔으면 좋겠나요?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꾸준히 일하실 수 있는 끈기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 **회사명** 에코밸리
- **회사업종**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업
- **회사슬로건**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미래를 꿈꾼다. 도전, 열정, 창조로 최고를 지향한다.
- **근무내용** 조경 설계 디자인
- **모집직종** 디자인 설계팀 (외부시설특화디자인, 외부 환경디자인)
- **고용형태** 대졸 (신입)
- **급여** 연봉 2400
- **근무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03 3층 (상수동,에코시티)



- **휴일휴가** 주 5일 근무, 업무 특성상 토요일은 당직개념으로 번갈아 근무
- **복지후생** 4대보험,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가능, 휴게공간, 구내식당 보유. 마라톤, 김장, 워크숍 등 직원 단합 단체행사 있음.
- **지원자격** 교수추천서를 가진 조경학과 졸업생 환영. 외부 환경디자인, 설계 디자인, 산업 디자인 전공자 우대. 직원 단합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요구 인물상** 성실하고 끈기있는자세, 기본 예의와 선후배간 예절을 중요시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
- **모집기간** 상시
- **채용예정인원** 00
- **전형과정** 1차 서류면접 2차 그룹면접 이후 3개월의 인턴과정을 통해 정직원으로 채용결정
- **홈페이지** <http://www.eco-valley.com>
- **전화** 02-3272-7723
- **이메일** cs@eco-valley.com
- **태그** 환경 강소기업 디자인